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사상)

성명 수험 번호 2 제 [] 선택

윤리와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람이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자 OO에게

인간과 동물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자네의 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네. 인간과 동물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욕구를 지니고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네. 하지만 동물과 달리 인간은 반성적 사고와 비판적 검토를 통해 스스로 선한 행위를 선택하고 추구하는 존재라네. 이때 인간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한다네. 이는 어느 동양 사상가가 강조한 '일일삼성(一日三省)'에도 잘 나타나 있네. 이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네.

- ① 자율적 선택이 아닌 자연법칙에 순응하는 존재이다.
- ②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 ③ 생존 활동에 필요한 욕구 충족만을 중시하는 존재이다.
- ④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존재이다.
- ⑤ 이성적 사고나 숙고 없이 관습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다.

2. 그림은 대화형 인공 지능을 활용한 검색 화면의 일부이다.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은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 ② ㉠은 도덕적 주체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 ③ ㉡은 바람직한 사회 체도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④ ㉡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준다.
- ⑤ ㉠과 ㉡은 상호 의존적 관계로 각각의 고유 영역은 지니지 않는다.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여 진정한 예로 돌아가는 것 [克己復禮]이 곧 인(仁)이다.
- 군자는 밥 먹는 순간에도 인을 어기지 않고, 아무리 급한 때라도 반드시 인에 근거하며, 위태로운 순간일지라도 인에 근거한다.

- ①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할 때 정성을 다해야[忠] 하는가?
- ② 형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인에 근거하여 예를 행해야 하는가?
- ③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惻] 하는가?
- ④ 존비친소(尊卑親疏)를 구분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 ⑤ 통치자는 자기 몸과 마음을 수양한 뒤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가?

4.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上善若水].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道)에 가깝다.
- 천하에 금지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성은 가난해지고, 백성이 예리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국가는 더욱 혼란해지고, 법령이 밝을수록 도적이 더 많아진다.

- ① 겸허(謙虛)를 통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
- ② 시비(是非)의 구별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
- ③ 오감을 통해 얻은 지식을 쌓아 경(敬)의 자세를 함양해야 한다.
- ④ 예법을 통한 다스림으로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실현해야 한다.
- ⑤ 문명이 발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위(無爲)를 실천해야 한다.

5. 다음은 어떤 학생의 필기 내용 중 일부이다. ㉠ ~ ㉡ 중 옳지 않은 것은?

< 동양 사상의 이상적 인간상과 그 특징 >

1.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 군자
 - 1)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고 의로움을 추구함 ㉠
 - 2) 스스로 덕을 닦고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감 ㉡
2. 대승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 보살
 - 1) 대중과 사회로부터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을 추구함 ㉢
 - 2) 여섯 가지의 바라밀을 실천하며 살아감 ㉣
3. 도가의 이상적 인간상: 진인, 지인
 - 1) 인위에서 벗어나 소박한 삶의 자세를 추구함 ㉤
 - 2) 꾸밈과 가식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살아감

- ① ㉠ ② ㉡ ③ ㉢ ④ ㉣ ⑤ ㉤

6.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 색(色)은 무상(無常)하고, 수(受), 상(想), 행(行), 식(識)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나[我]가 아니며, 나가 아니면 또한 내 것도 아니다.

- ① 모든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 불성(佛性)을 형성해야 한다.
- ② 변화하는 현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아를 확립해야 한다.
- ③ 팔정도(八正道)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
- ④ 삼독(三毒)을 추구하여 괴로움의 원인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 ⑤ 모든 중생은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7.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어린아이가 우물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 누구나 깜짝 놀라며 측은해 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렇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어린아이를 구했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지니고 있다.

<보 기>

- ㄱ. 대인(大人)과 소인(小人)의 타고난 본성은 동일하다.
- ㄴ. 인의(仁義)는 선한 마음이 존재함을 알려주는 단서[端]이다.
- ㄷ. 지극히 크고 굳센 도덕적 기개[浩然之氣]를 길러야 한다.
- ㄹ. 옳은 일을 꾸준히 실천하여[集義]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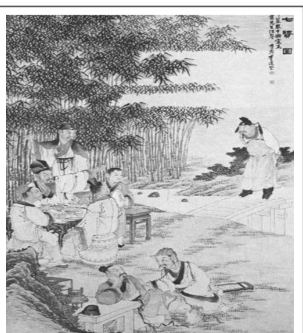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그림은 어느 동양 사상을 검색한 화면이다. (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http://ww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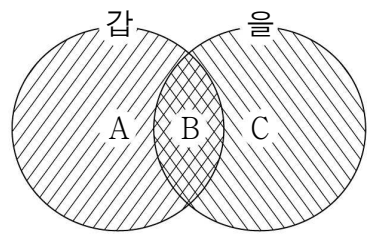
(가) 검색

정치적 혼란 속에서 도가 사상을 종교로 발전시킨 태평도나 오두미교와 달리 도가 사상을 철학적으로 계승하면서 인간의 고정관념을 초월한 무(無)의 세계를 진실한 세계로 보고, 현실에서 벗어나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들을 흔히 죽림칠현(竹林七賢)이라 부른다.



- ①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사유를 중시하는 논의를 강조한다.
- ② 개인의 명예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성공을 강조한다.
- ③ 사회 발전을 위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 ④ 종교적 구원을 통해서만 도(道)를 깨달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 ⑤ 양생(養生)을 위해 규정된 교리와 의식에 따를 것을 강조한다.

9.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마음[心]은 성(性)과 정(情)을 통괄하는 것이다. 성은 곧 이(理)이다. 무슨 일이 생겼으면 이미 선하거나 혹은 악할 수밖에 없으나, 아무 일도 없고 오직 이치만 있다면 선하지 않음이 없다.</p> <p>을: 마음이 곧 이(理)이다. 효성스러운 마음은 곧 나무의 뿌리와 같고, 효성을 다하는 일들은 나무의 가지나 잎과 같다. 뿌리가 있고 가지와 잎이 있는 것이지, 가지와 잎을 찾아놓은 뒤 뿌리를 심지는 않는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보 기>

- ㄱ. A: 마음에는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 ㄴ. B: 지(知)와 행(行)은 본래 하나이며 선후(先後)가 없다.
- ㄷ. B: 천리(天理)를 보존하고 인욕(人欲)을 제거해야 한다.
- ㄹ. C: 마음 밖에는 따로 이치가 존재할 수 없다[心外無理].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동양인들은 형이상에 밝기 때문에 그 도(道)가 천하에 홀로 우뚝하며 서양인들은 형이하에 밝기 때문에 그 기(器)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 동양의 도로써 서양의 기를 행한다면 온 세계를 평정할 것도 없다.

을: 서양 물건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올바른 우리의 도를 밝혀 백성을 교화하고 윤리 정신을 넓혀 나가야 한다. 우리의 것이 성하게 되면 저들의 것이 사라질 것이요, 이쪽의 것이 밝혀지면 저들은 달아날 것이다.

- ① 갑: 부국강병을 실현하기 위해 유교적 덕목을 배제해야 한다.
- ② 갑: 백성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척해야 한다.
- ③ 을: 민족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성리학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
- ④ 을: 올바른 동양의 도를 바탕으로 서양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신분 제도를 폐지하고 서양의 종교와 사상을 수용해야 한다.

11.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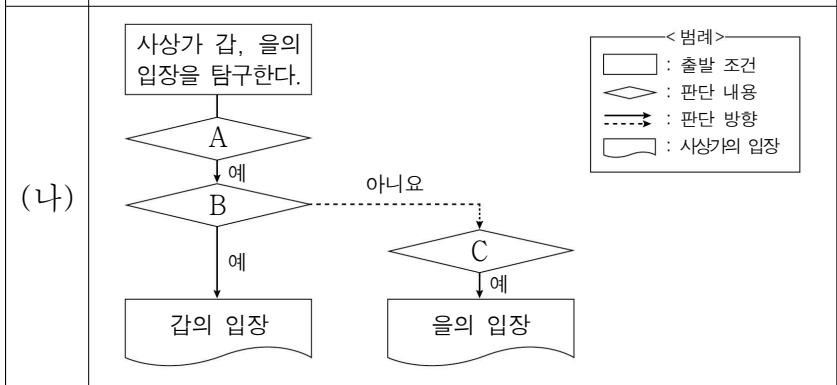
대승의 진리[大乘法]에는 오직 일심(一心)만 있을 뿐이다. 이 일심 외에 또 다른 진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무명(無明)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의 일심을 알지 못하므로 윤회(輪廻)의 삶을 떠돌게 되는 것이다. 비록 윤회의 삶이라는 파도가 일어나지만 일심의 바다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일심을 자각하지 못하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	√
부처의 모든 가르침 또한 일심으로 귀결되므로 화쟁(和諍)해야 한다.		√		√	√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은 근본적으로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		√	√	
각 종파가 강조하는 특수한 입장을 배제해야만 일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2. (가)의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은 모두 정이지만 다른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말한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각각의 유래와 관련하여 주로 하는 바를 가리켜 말한다면, 어떤 것은 이(理)라고 하고 어떤 것은 기(氣)라고 하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
 을: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七包四]. 측은(惻隱)은 사랑에 속하고 수오(羞惡)는 미움에 속하고 공경은 두려움에 속하고 시비(是非)는 기쁨과 노여움의 마땅함과 마땅하지 않음을 아는 것에 속하니, 칠정 밖에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보 기>
 ㄱ. A: 사단은 칠정 중의 선한 감정을 일컫는 것인가?
 ㄴ. B: 사단과 칠정에는 모두 이와 기가 함께 있는가?
 ㄷ. B: 사단과 칠정은 서로 다른 연원을 가지고 있는가?
 ㄹ. C: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에 타서 드러난 것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길거리 사람들도 모두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길거리 사람이라도 안으로는 모두 아버지와 자식의 도리를 알 수 있고, 밖으로는 임금과 신하의 올바른 관계를 알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나 오랜 시일 동안 계속 선(善)을 쌓으면 천지의 변화와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다.

<보 기>
 ㄱ. 인간의 선한 행위는 후천적인 노력[偽]의 결과이다.
 ㄴ. 모든 사람은 도덕규범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ㄷ. 타고난 본성을 확충하면 사회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
 ㄹ. 교육과 배움 없이도 내면적 도덕규범인 예(禮)를 실천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분별 작용을 버린다면 도(道)와 한 몸을 이루어 두루 통하게 된다. 이것을 좌망(坐忘)이라고 한다. 도는 오로지 텅 빈 곳에 모이는 법이다. 이처럼 텅 비우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심재(心齋)라고 한다.

- ① 진정한 도의 의미를 깨달아 예악(禮樂)을 확립해야 한다.
 ② 참된 수양을 통해 도덕적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③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는 제물(齊物)의 경지를 지향해야 한다.
 ④ 자연의 순리에서 벗어나 물아일체(物我一體)를 실현해야 한다.
 ⑤ 분별적 지식을 쌓아 절대적인 정신적 자유[逍遙]를 추구해야 한다.

15. 동양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부터 발생하며 자성(自性)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공(空) 아닌 것이 없다. 만일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면 생멸(生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성제(四聖諦)의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을: 마음의 흐름이란 마음의 씨앗이 현재의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다시 마음의 씨앗으로 저장되는 허구적 분별의 과정이다. 그렇게 허구적으로 분별된 외부의 대상은 실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체는 유식(唯識)일 뿐이다.

- ① 갑: 공의 원리에 따르면 고정불변한 실체가 반드시 존재한다.
 ② 갑: 중도(中道)로써 존재의 있음 또는 없음을 분별해야 한다.
 ③ 을: 마음의 작용과 무관한 객관적 현상이 따로 존재할 수 있다.
 ④ 을: 마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집착만을 만들어 낼 뿐이다.
 ⑤ 갑과 을: 모든 사물은 자성이 없고 인연에 따라 존재한다.

16.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인간의 성(性)이 선(善)에 마땅하다는 것은 배추가 오줌에 마땅하고 마늘이 닭똥에 마땅하고 벼가 물에 마땅한 경우와 같다. 어떤 것에 마땅하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이라는 글자가 본래 기호(嗜好)에 사용되었음은 의심할 것이 없다.

— <보 기> —
 ㄱ. 인간은 동물과 달리 형구(形軀)의 기호를 지닌다.
 ㄴ. 사덕(四德)은 사단(四端)의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ㄷ.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 모든 생리적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ㄹ. 인간은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지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근대 한국 사상 (가), (나), (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사람이 곧 한울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한울님같이 해야 한다. 사람 섬기기를 멀리하면서 한울님을 섬기는 것은 꽃을 따 버리고 열매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나) 일원상(一圓相)의 진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우리는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
 (다) 해원(解冤) 시대에는 신분의 차별,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않고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를 세워야 한다.

- ① (가)는 모든 인간은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평등하다고 본다.
 ② (나)는 종교적 수행과 일상생활을 병행할 수 없다고 본다.
 ③ (다)는 상생을 위해 무속과 도교를 배척해야 한다고 본다.
 ④ (가)와 (나)는 현실에서는 이상 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본다.
 ⑤ (나)와 (다)는 정신 개혁보다 물질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18.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불법[法]에 돈(頓)과 점(漸)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불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영리함과 우둔함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단계적인 수행을 권하지만, 깨달은[頓悟] 사람은 단박에 닦는다.
 을: 점수(漸修)라는 것은 무엇인가. 본성이 부처와 다름 없음을 깨달았으나 과거부터 익혀온 습기(習氣)를 단박에 제거할 수 없어 깨달음에 의지해 닦으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공(功)을 이루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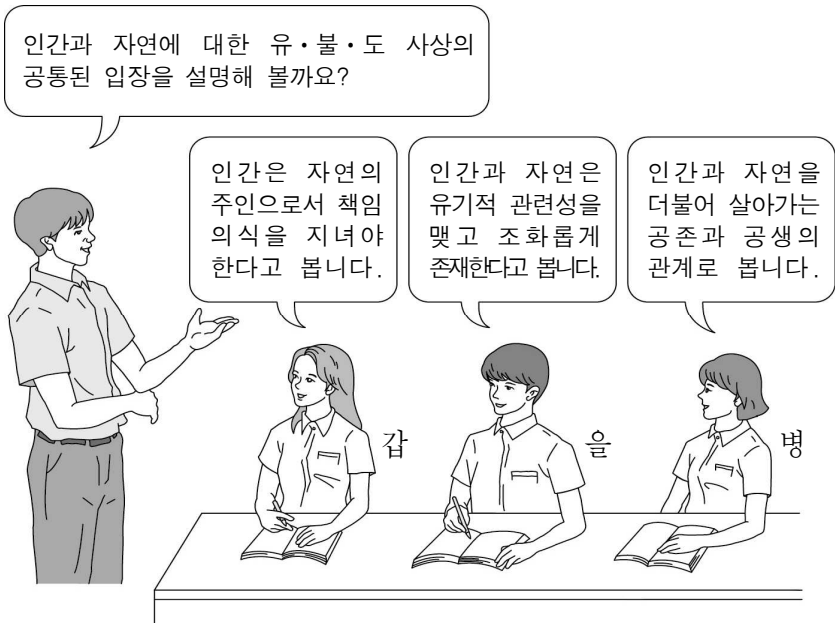
- ① 갑: 돈오하면 점진적 수행 없이도 부처가 될 수 있다.
 ② 갑: 진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以心傳心]이다.
 ③ 을: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는 것이 점수의 방법이다.
 ④ 을: 오랜 습기는 돈오하더라도 곧바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⑤ 갑과 을: 경전 공부[教]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탈할 수 없다.

19.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사람들이 무력으로 복종시키려 하면서 인(仁)을 행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 패도(覇道)이다. 덕으로써 인을 행하는 왕도(王道)를 실천하게 되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복종하게 된다.
 을: 사람은 욕망을 추구하는데 일정한 기준과 제한이 없으면 다툼이 없을 수 없다. 다툼은 혼란을 가져오고 혼란은 사람을 궁핍하게 만든다. 혼란을 싫어하는 선왕(先王)은 예의(禮義)를 제정하여 구분을 지었다.

- ① 갑: 백성의 항산(恒産) 보장을 왕도의 최종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② 갑: 인의(仁義)를 해쳐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군주는 교체해야 한다.
 ③ 을: 재화는 능력과 상관없이 타고난 신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④ 을: 성인이 제정한 예를 통해 백성들의 모든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
 ⑤ 갑과 을: 백성들을 오직 법(法)과 술(術)으로써만 통제해야 한다.

20. 그림에서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갑, 을 ⑤ 을, 병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